

사회적 농업의 실천과 담론을 전하는

사이통신 6



차례

다양한 시선

- 7 곁을 내주고, 당기되 쏘지 않는 것 / 김정섭
17 지역에 바탕을 둔 사회적 농업,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 김기홍

가꾸는 실천

- 29 사회적 농업, 한눈에 살펴보기
30 대전·충남권 사회적농업 농장&지역서비스공동체형 단체 안내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사업 소개
34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 연결합니다 / 이이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소개
45 천안 다함원 사회적 농장 도란도란 꽃자리를 소개합니다 / 정훈영
사회적 농업 지역서비스공동체형 사업 소개
54 스스로 서고 함께 돌볼 수 있도록
농촌 지역사회의 역할 되찾기 / 신소희

나누는 공부

- 67 아일랜드의 사회적 농업과 지적 장애인 지원 서비스 / 김정섭
84 전하는 소식



다양한 시선

곁을 내주고, 당기되 쓰지 않는 것 / 김정섭

지역에 바탕을 둔 사회적 농업,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 김기흥



결을 내주고, 당기되 쏘지 않는 것

합리와 정리의 사잇길에서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결을 내주는 것

언제 어디서나 맥락을 살피지도 않고 체계system를 강조하는 이들을 자주 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김없이 ‘구조’와 ‘기능’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불안증이라도 걸릴 듯, ‘체계적이지 않음’을 못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질서와 혼란, 비효율과 낭비를 근심하기 때문이라는 건 잘 알지만, ‘체계적인 것’이 늘 정답일까요? 체계의 출발점은 구분입니다.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가 없다면, 안에서도 다시 전체를 구성하는 하위 구조들을 가르는 경계가 없다면, 그건 체계가 아닙니

다.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나 조직의 일로 따지면 역할을 나누어 분업해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업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조직 중 하나가 패스트푸드 체인점 맥도날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맥도날드 매장이 셀 수 없이 많지만, 어딜 가나 빅맥 햄버거의 크기와 맛은 똑같습니다. 20년 전에 프랑스에 간 적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음식점에서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맛이 어떨지를 짐작할 수 없어서 고역이었습니다. 한끼 식사를 운에 맡겨야 하는 처지였지요. 그러던 중에 파리 외곽을 거닐다가 맥도날드 간판을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맥도날드를 만나다니!” 우리 일행은 곧바로 들어가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사 먹었습니다. 맥도날드의 햄버거 맛이 어떤지를 다 알고, 프랑스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과연, 맥도날드는 우리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맥도날드가 그럴 수 있는 건 매장에서 직원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구별되어 있으며, 조리법도 표준화되어 전 세계 공통이기 때문입니다. 즉, 고도로 체계화된 덕이지요.

혹시,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으시는지요? 전국 어느 곳의 사회적 농장이든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햄버거 고기를 굽고 빵에 끼워 넣는

방법을 정해둔 ‘빅맥 조리법’ 같은 것이라도 있어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민이라면 모두 그 매뉴얼을 숙지하고 그대로 따라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농업 실천이나 관련 정책이 ‘정교하고 견고한 체계 구성’을 지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럴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적 농업은 체계의 견고한 장벽에 균열을 내고 사람들을 분리하는 경계를 허무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한 곳은 이탈리아입니다.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한 시설의 담장을 허물고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community에서 이웃과 어울려 지낼 수 있게 하자는 운동이 196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운동으로부터 사회적 농업 실천이 비롯되었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운동’이라고 표현했지만, 달리 말하자면 농민들이 자기 농사일을 수단 삼아 이러저러한 소외된 이웃에게 곁을 내주는 것일 따름입니다. 마을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치매가 시작되어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고 고독한 나날을 지내더라도, 그 어르신을 챙기고 돌보는 것은 사회복지기관이 할 일이니 농사짓는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내 농장에 초대해 이런저런 농사 이야기라도 나누는 말벗이 되어줄 수는 없을까요?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내 소원은 자식이 죽는 날까지 그 뒷바라지 하다가, 자식 죽으면 그 다음 날 죽는 것입니다”라

며 탄식하기도 합니다. 장성했지만, 어디 직장을 다니지도 못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들딸을 홀로 놓아둘 수 없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말입니다. 이웃 동네 사는 발달장애 청년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오라고 해서 소 먹이 주고, 풀 뽑고, 농사일 거들고, 함께 식사하고, 소액이라도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농민이 곁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장애인을 챙기는 일은 농민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끝날 일일까요?

불행히도, 한국 사회에는 은연중 매사에 분업과 전문화를 장려하고 미덕으로 여기는 풍토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덕에 전문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영역을 가르고 경계선을 긋기만 할 뿐인 온갖 자격증 제도와 인증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는 ‘불통의 문화’입니다. 분화는 불통의 씨앗을 간직하기 마련이며, 전문화는 폐쇄성의 암초를 만나기 십상입니다. 물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말도 있습니다.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약을 조제하는 일은 약사가 하는 게 옳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약사와 의사가 소통할 필요도 협력할 필요도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지역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소통과 개방성을 장려하고 서로 협력해 지역사회를 화목한 곳으로 만들자며 농민들이 먼저 나설 때, 사회적 농업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한 동네 살아도 하는 일이 달라서 안 만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궁리하고 지역사회 어느 곳인가에서 배제된 이들을 환

대하는 실천이 사회적 농업입니다. 농민 입장에서 보면, (다시 말하지만) 그저 농장에서 그이들에게 곁을 내주고 나란히 서서 농사일하고 대화하고 함께 밥 먹는 것일 따름입니다.

인이불발引而不發, 당기되 쏘지 않는다

대략 5년 동안 틈틈이 사회적 농업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지만, 대개는 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일부러 모호하게 응답한 때가 많았습니다. 가령, “어떤 것이 사회적 농업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응했고, “사회적 농업이 ‘농업’이냐 ‘사회복지’냐”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답했습니다. “사회적 농업의 실천 주체는 ‘농사짓는 농민’이라고 들었는데, 어느 사회복지기관이 데리고 있는 장애인들과 함께 농사를 짓는다면 그것도 사회적 농업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약자, 혹은 취약계층, 혹은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농활동을 통해서 돌봄이나 교육이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어느 농민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을 오라고 해서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한다면 그것도 사회적 농업이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같은 농업법인이 아니라 그냥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

합은 법적으로 농업경영체로 인정되지 않으니 사회적 농업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매번 제 대답은 “실제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식의 모호한 것이었습니다. 또는 “사회적 농업은 농업이면서 동시에 사회복지 실천이다”는 식으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모호하게 답변하면서 저는 ‘질문의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하여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확정적인 답변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데 무슨 실제적 도움이 되느냐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또는 다른 누군가를 두고 사회적 농업의 주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식의 질문은 시급한 게 아닙니다. 던져야 할 진짜 중요한 질문은, ‘지금 내가 하(려)는 실천은, 누군가에게 얼마나 곁을 내주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혹은 ‘이런 실천이 지역사회에서 서로 돕고 돌보는 협동과 연대의 문화를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입니다. 달리 말하면, 질문이 향해야 할 과녁은 나 또는 어느 농민의 체면이나 사회적 인정 따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길을 돌려 지역사회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언제까지고 미룰 수는 없을 터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선을 긋고, 교통정리를 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농업은 ‘경계

를 허무는 실천’입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방향으로 시선을 유지하면서 팽팽하게 활시위를 당기되 그것을 손에서 놓지 않고 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활시위를 놓는 순간 화살은 날아가서 명중이든 불발이든 결론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정해진 답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중時中을 좇아 일관되지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무것이나 다 사회적 농업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밀하고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북동쪽 방향 백 보에서 백이십 보 정도 되는 거리에 과녁이 있다는 것쯤은 다 아는 것이지요. 어느 한 방향을 가리키면서 미동도 하지 않는 나침반은 십중팔구 고장난 것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나침반은 그 바늘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움직이지만, 그래도 대략 북쪽 방향을 계속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주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한 것만 사회적 농업이야’라면서 도무지 바늘구멍조차 못 뚫을 만큼 확고하고 변함없는 견해가 있다면, 그건 좀 의심스럽습니다.

합리舍理와 정리情理의 사잇길

사회적 농업을 온전히 농민의 선의와 호의만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거나 “춘

선寸善이 척마尺魔보다 더 나쁘다”는 말에서 보듯이, 정情만으로 계속 실천하기는 어렵거니와 오해받거나 왜곡된 결과를 낳을 소지도 있습니다. 외려, ‘서늘한 합리성’도 사회적 농업 실천이나 정책의 바탕에 깔려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농민 입장에서 비용 문제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나는 사회적 농업이라는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라고 읊조리면서 대책 없이 계속 ‘좋은 일’만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농민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합리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농업을 열심히 실천할수록 시간이나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답이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농장을 찾아오는 이들(노인, 장애인, 청년, 아동 등)에게 요금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대체로 지불 능력이 없을 테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지불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도 두 번째가 합리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민이 정부로부터 대가를 지불 받는 체계를 만들기만 하면 ‘사회적 농업 실천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기대해도 좋을까요?

돈 문제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돈 문제를 해결한다고 모든 게 다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덧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부터 ‘도농교류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나

중에는 ‘농촌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농촌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아주 많이 생겨났습니다. ‘도농교류 운동’은 도시민과 농민 사이의 단절, 몰이해, 분리, 불통이라는 문제를 극복하려고 농민들이 도시민을 농촌으로 초대하는 것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마냥 공짜 구경이나 체험으로 도농교류 이벤트를 계속할 수 없는 노릇이니,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거나 약간의 사례를 받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체험 자체가 상품이 되었고, 그 수준을 넘어서 천박한 관행도 생겨났습니다. 수년 전 어느 농촌체험마을에 들렀다가 사무실 벽에 ‘고구마캐기 체험 1인당 〇〇〇〇원, 딸기수확 체험 〇〇〇〇원, 짚풀공예체험 〇〇〇〇원’ 하는 식의 메뉴판(?)이 커다랗게 걸린 꼴을 보고 기겁한 적이 있습니다. 도농교류는 상품화된 인간관계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제는 역설적이게도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 활동’이라는 변절자의 지위를 획득한 꼴입니다.

사회적 농업이라고 할 때, ‘사회’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것도 온기가 서린 따스한 인간관계를 뜻합니다. 사회적 농업 실천이 장애인 등으로 고객이 바뀌었을 뿐 체험상품 판매의 성격을 지니는 ‘거래관계’로 변질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정작 다시 호출해야 할 것이 바로 정리情理입니다. 정리가 있는 인간관계에서는 당연히 상대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합니다. 사회적 농장을 찾는 이들 개개인의 얼굴과 이름과 일상생활의 형편과 사정을 기억하고 환대하는 실천

이기를 바랍니다. 농장을 찾아오는 사람이 어쩌다 한두 번 오고갈 뿐이며 그 사람의 얼굴과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지경이라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사회적 농업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이런 연유로 사회적 농업은 정책만으로는 심화하고 확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농업 운동’이 있고, 그 뒤에서 정책이 지원하는 모습이 바람직합니다. 신영복 선생의 글 중에 사회적 농업의 의의를 되새길 만한 대목이 있어, 그것을 인용하며 글을 맺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만남이 없는 사회이며, 차마 있을 수 없는 일이 버젓이 자행되는 것은 그 만남의 부재不在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식품에 유해 색소를 넣을 수 있는 것은 생산자가 소비자를 만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얼굴 없는 생산과 얼굴 없는 소비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당구공과 당구공의 만남처럼 한 점에서, 그것도 순간에 끝나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관계없음’이기에 서로를 배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역에 바탕을 둔 사회적 농업,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김기홍
(사)한국유기농업연구소 부소장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

국내에서 사회적 농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4년이 되었다. 사회적 농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8년부터 농장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2020년 3월에는 범부처 차원에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포용적 복지국가와 국가 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해 관련 5개 부처가 참여했는데 기존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서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가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에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프라를 갖추는 데 노력'하기로 하였고 세부 협력사업으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가 제시되었다. 사회적 농업은 대상 측면에서 아동이나 청소년 측면에서 교육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복지와 연계하면 노인이나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복지 계층을 다루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최근에는 방식 측면에서도 마을 공동체 단위의 교육이나 복지라는 접근과 연계되기도 한다.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역복지 문제를 함께 묶어 해결해보자는 노력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찍이 마련되어왔다. 이탈리아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국가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농업을 중심으로 마련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주로 진행되어갔다. 네덜란드에서는 1990년대 중반까지 민간 농장을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가 시작되다가, 2000년대 초에는 사회적 농업에 대해 국가 지원이 늘었다. 벨기에에서도 예전부터 사회 연대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과 농업을 통한 돌봄 서비스 활동이 이루어져왔다.

충남형 사회적 농업의 논의

충남형 사회적 농업은 2019년에 충청남도의회에 마련된 복지·보건 정책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농촌지역에서의 복지 문제를 농촌지역 자원인 농업을 통해 지역 단위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사회적 농업' 현장 탐방과 세미나를 기획하게 된 것이었다. 홍성군 장곡면 협동조합 행복농장(2018년 국비 사업자)은 이미 알려진 대로 주로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활동해왔다. 이후에는 지역 내 소외된 장애인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활동들을 늘려가고 있다. 홍동면에 위치한 꿈이 자라는 뜰(2021년 국비 사업자)은 발달장애에 청소년을 위해 지역 특수학교 교사와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교사 등이 함께하는 돌봄이 진행되고 있다. 홍동면의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2021년 국비 사업자)은 지역주민이 지역의 의료와 보건,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는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마을주치의 제도를 만든 실천 현장이다.

현장 방문 후에는 지역주민 포함 60여 명이 모여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함께 복지 문제를 바라보고 점검해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 가 이어졌다. 농사를 통해 돌봄과 교육과 고용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농업'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자리에서 당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김연 의원이 지역복지 정책과 사회

적 농업이 접목할 방안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연말에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 해에는 시범사업이라도 시작해보겠다고 약속하면서 충남형 사회적 농업 진행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5월부터 도의회가 만든 연구용역이 진행되면서 충남형 사회적 농업에 대한 고민들을 구체적으로 해나가게 된다. 실제로 연구용역 진행을 통해 2019년에는 충남 사회적 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다음 해부터 2년간 총 4개소(각 8천만 원)로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육성 시범사업이 만들어졌다.

충남형 사회적 농업의 설계

충남형 사회적 농업의 핵심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농장만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그런 네트워크가 원활하려면 너무 큰 지역 단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읍이나 면 단위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런 읍면 단위에 뜻을 함께하는 농장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으니 아직 사회적 농업을 경험해보지 못한 초보 농장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어도 서너 개 농장이 구성되도록 꾸려졌다. 어떤 농장

은 농장의 작목이나 특성상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 자신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농장은 주간보호센터의 만성정신질환자라든지 성인발달장애인, 어떤 농장은 노인이나 치매노인, 혹은 지역에 새로 들어와 농업에 아직 어려움을 겪는 귀농 청년이나 귀농 여성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 네트워크 안에서 좀 더 다양한 취약계층이, 나중에는 지역 밖에서 들어온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지역 내 더 많은 취약계층이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올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넛의 농장이 섭외된 다음에는 지역주민의 협력 과정이 중요하다. 도대체 지역에 어떤 취약계층이 있는지 혹은 어떤 농장들이 있는지 알려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주민 대표나 마을발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다양한 형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회나 부녀회 등 지역주민 모임의 차원이면 어떤 형태든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들은 농사짓는 데 보조 교사나 인력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활동 도중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다시 그러한 주민들이 취약계층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런 뒤 취약계층 대상자만이 아니라 취약계층 대상자 관련 단체, 즉 장애인협회나 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회, 치매안심센터, 지역아동센터, 발달장애인부모모임, 다문화가족모임, 북한이탈주민 하나센

터 등도 함께하여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더불어 지역에 마련된 마을만들기센터나 지역활성화센터 등 지역 중간조직도 들어오도록 하여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구성되어 읍면 단위 네트워크로 신청하면 사업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네트워크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역 단위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적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해본 뒤, 마을 단위 ‘농촌형 커뮤니티 센터’로 법인화하거나 주민자치회로 정착하여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큰 그림으로 마련되었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 농업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했다. 일단 사회적 농업에 대한 기초 이해와 가치 교육에서 복지 관련 부분이나 장애인의 정서적인 부분 등 무엇이든 필요한 것들을 농가들과도 진행하고 지역주민이나 취약계층 단체와도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했다. 실제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이 있다. 단기 과정이나 심화 과정, 정기적인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좀 더 다양한 취약계층과의 일시적인 활동도 가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전문가 컨설팅을 받거나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가에 대한 비용으로도 사용하게 했다. 이렇게 ‘패키지 형식’으로 마련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주민과 취약계층 관계기관, 농장들 간에 서로 도움을 받아 사회적 농업을 시범적으로 해나가다가, 어느 정도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프로그램 진행에도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국비 사업을 신청해서 5년간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국비사업으로 나간 자리는 지역의 다른 농장으로 채워지고, 국비사업을 받는 대상자는 다시 지역에서 농장의 사회적 농업을 해나가면서 다른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충남형 사회적 농업의 실제

야심차게 설계된 충남형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은, 사실 그해 모두 같은 상황이었지만,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진행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아직 취약계층이 결정되지 못한 정말 초보 사회적 농업 실천 농장들이어서, 협약을 맺기는 했지만 취약계층 단체에서 보내기 어렵다는 통보가 많았다. 농장 단위 사업이었으면 취약계층만 조심히 농장으로 와서 진행하면 되기도 하였으나, 충남형은 네트워크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시작부터 네트워크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큰 우려로 특히 외부 취약계층이 지역으로 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또한 네트워크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 조성되기 어려운 환경도 진행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 지역주민 단체나 취약계층 단체가 함께하기 어려웠던 것은 물론 농장들조차도 함께 교육받거나 선진지 견학을 가거나 함께 프

로그래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여기에 지역 네트워크 중심이라는 새로운 컨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군 담당자나 주민, 관계자, 참여자 모두 함께하는 집합교육이 선행되어야 했고 그렇게 설계했으나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충남형 시범사업에서 그랬던 큰 목표가 빠르게 달성되는 효과도 있었다. 2020년 첫 해는 모니터링을 위해 참여한 필자 역시 조심하면서 네트워크 대표와 도시군 담당자 1명으로 인원을 최소화하면서 어렵게 정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니, 어려움에 대한 고민들을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었고 서로 더 많이 의지하고 도움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농장들 간 소통은 더욱 커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더 깊이 하게 되었다. 교육이나 소규모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도 했고, 코로나 상황이어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도 했다.

또한 초기 사업 예정으로는 외부 취약계층이 주를 이루었으나, 코로나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내 취약계층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일례로 치매노인 대상 활동이 보건소에서 우려가 커서 진행되지 못하게 되자, 지역에서 마을회관·노인정 등의 폐쇄로 출타가 어려워진 노인분들과 방과후 돌봄이 어려워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

로 바뀌게 되었다. 또 다른 지역 사례에서는, 옆집에 거주하는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지역에 계신 지체장애인과 독거노인도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하기도 했다.

사업 초창기에는 외부 취약계층으로 하다가 향후에는 지역 내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함께하면서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해가자는 것이 충남형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였는데, 그것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었다. 그리고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활동들을 지켜본 지역주민들은 다시 사회적 농업 사업으로 지역 단위에서 가능한 복지 문제 접근, 마을사업에 대한 가능성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주로 귀농한 농장 대표들은 본인들 농사짓기도 바쁘고 고되어 지역 활동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여력이 없었으나, 이 사업을 계기로 부지런히 마을모임에 쫓아다니면서 활동을 홍보하기도 하면서 지역공동체 주민으로서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충남형 사회적 농업 사업의 목표는 이렇게 다양한 주민인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복지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점검해보면서 우리 마을 단위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촌지역에서 조금이라도 소외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이외에도 아동이나 청소년, 남성 농업인에 비해서는 여성 농업인, 새 귀농귀촌인이나 농사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 등을 모두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농업을 통해 돌봄이나 교육이나 고용 창출을 해 보자는 것이다. 가능한 한 지역사회가 함께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그물망을 치고 보듬어가자는 것이다. 이런 그물망에 걸리지 않는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말 공공 영역에서 세심한 돌봄을 해나가도록 지역사회가 찾아내자는 것이다.

이러한 충남 사례가 본보기가 되어 정부는 '지역공동체서비스' 부분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지역공동체'라는 단위가 어떤 것인지, 그러한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해서, 지역 단위 여건에 맞고 조금 더 지역복지 문제를 지역 단위에서 스스로 고민해갈 발판을 더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해본다. 올해 충남형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은 본 사업의 궤도를 탔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또 어떤 다양한 지역 차원의 활동들이 그려질지 기대된다.

가꾸는 실천

사회적 농업, 한눈에 살펴보기

대전·충남권 사회적 농업 농장&지역서비스공동체형 단체 안내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사업 소개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 연결합니다 / 이이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소개

천안 다함원 사회적 농장 도란도란

꽃자리를 소개합니다 / 정훈영

사회적 농업 지역서비스공동체형 사업 소개

스스로 서고 함께 돌볼 수 있도록

농촌 지역의 역할 되찾기 / 신소희



사회적 농업, 한눈에 살펴보기

◆ 사회적 농업 활성화사업

2018년도 9곳을 시작으로 해서 2022년도 현재 전국에 총 83곳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사업 농장이 있습니다. 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을 토대로 한 돌봄과 교육, 일자리 제공 등을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농촌 지역공동체를 가꾸어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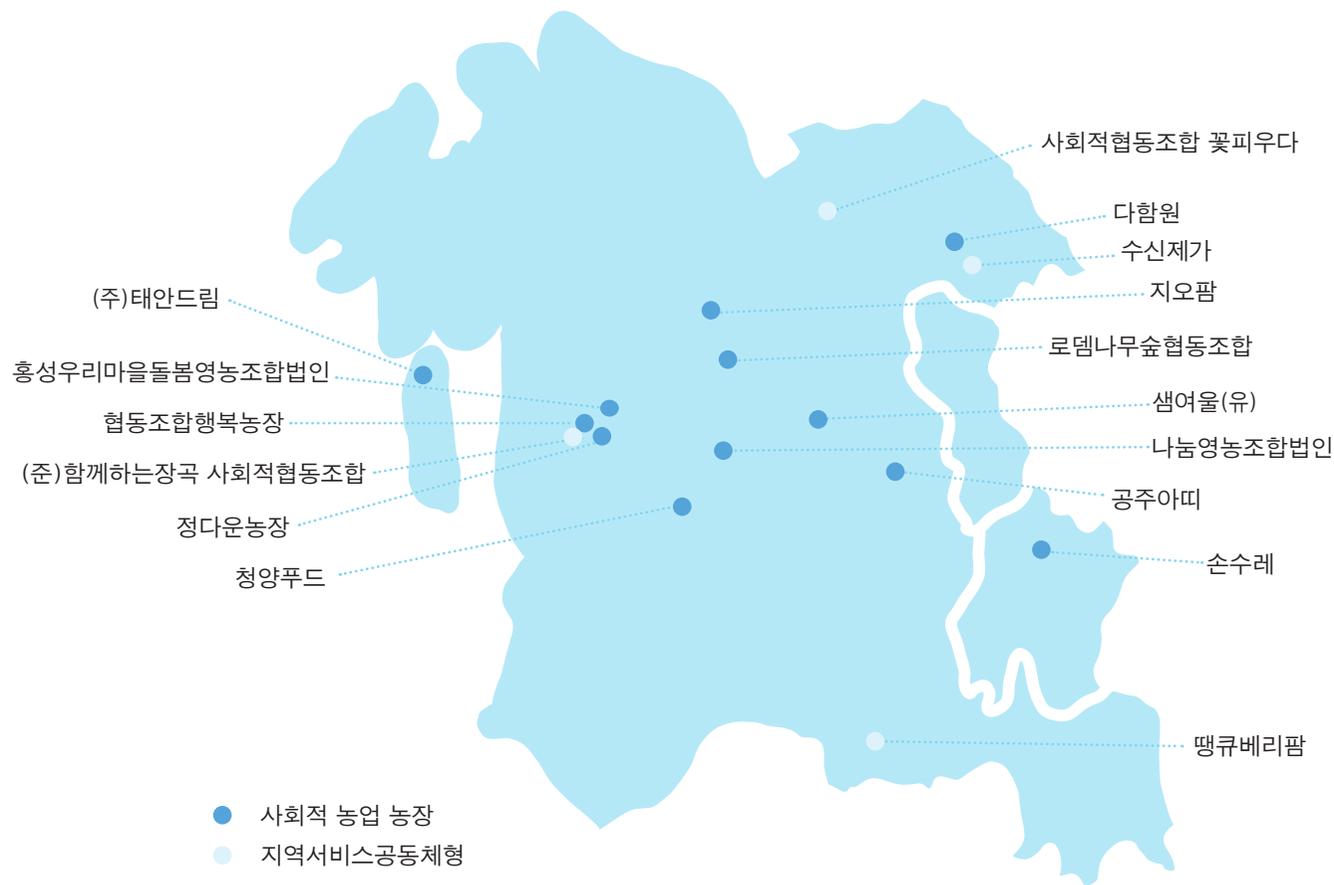
◆ 지역서비스공동체형

2022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총 22개의 지역서비스공동체형이 선정되었습니다. 공동체 단위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지역서비스공동체형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농촌주민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코디네이터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도움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내 위치한 농장과 필요 시 사회·복지자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유형입니다.

◆ 거점농장

2020년도 전국의 4개 거점농장을 시작으로 2022년도 현재 7개(경기·인천, 대전·충남, 세종·충북, 전남, 경남·경북·울산, 강원, 전북·완주)의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이 있습니다. 거점농장은 각 권역에 위치해 있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사업 농장과 지역서비스공동체형 실무자가 함께 만나 상호학습과 교류를 촉진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거점 내 사회적 농업 실천을 지원·자문하고, 교육·연구·홍보 활동과 함께 관련 분야의 협력을 도모합니다.

대전·충남권 사회적 농업 농장 & 지역서비스공동체형 단체 안내



대전·충남권 사회적 농업 농장

협동조합행복농장

☎ 최정선
 ✉ happyhanfarm@gmail.com
 📍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 586-6
 🌿 정신장애인
 🌿 와일드 루꼴라, 애플민트, 바질, 초화류

홍성우리마을돌봄영농조합법인

☎ 최문철
 ✉ hsmcdcoop@gmail.com
 📍 충남 홍동면 홍동길 194
 🌿 고령자, 발달장애
 🌿 허브, 화훼

지오팜

☎ 이재인
 ✉ carejin01@hanmail.net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212번길 30-30
 🌿 발달장애
 🌿 천혜향

정다운농장

☎ 이성자
 ✉ jdufarm@naver.com
 📍 충남 장곡면 홍남동로 793번길 35
 🌿 고령자
 🌿 애플민트, 로즈마리, 스노우피, 루꼴라, 스틱브로콜리

다함원

☎ 정훈영
 ✉ diafamily@hanmail.net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용암2길 137
 🌿 고령자
 🌿 각종 채소류

청양푸드

☎ 복정한
 ✉ cyfood3673@naver.com
 📍 충남 청양군 대치면 탄정길 90-97
 🌿 발달장애
 🌿 토종식물, 쌈채류, 두릅, 엄나무순

나눔영농조합법인

- ☎ 박영숙
- ✉ pys923@gmail.com
- 📍 충남 청양군 대치면 상갑1길 7-3
- ♿ 고령자, 청소년, 청년, 귀농·귀촌자
- 🌿 쌈채소, 구기자, 블루베리

샘여울(유)

- ☎ 이숙길
- ✉ farm0214@naver.com
-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여드니1길 29-7
- ♿ 발달장애인
- 🌿 연농사

(주)태안드림

- ☎ 한명숙
- ✉ yes1471@naver.com
- 📍 충남 태안군 안면읍 붓드기길 12
- ♿ 발달장애
- 🌿 벼, 초화류

공주아띠

- ☎ 정영숙
- ✉ maryevan@hanmail.net
- 📍 충남 공주시 신봉면 사랑골길 91-3
- ♿ 발달장애
- 🌿 오디뽕, 허브, 식용꽃

(주)손수레

- ☎ 백중운
- ✉ artistback@gmail.com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003-27
- ♿ 발달장애
- 🌿 각종 채소류

로템나무숲 마을관리복지협동조합

- ☎ 박정웅
- ✉ jup1223@naver.com
- 📍 충남 예산군 대학로 59
- ♿ 고령자
- 🌿 초석잠, 화훼

대전·충남권 지역서비스공동체형

사회적협동조합 꽃피우다

- ☎ 하종중(대표), 추재환(코디네이터)
- ✉ hero0410@naver.com
-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랑길 17
- ♿ 고령자, 정신장애인
- ♻ 돌봄, 농업교육, 고용, 자립지원

수신제가

- ☎ 박의경(대표), 김유경(코디네이터)
- ✉ foolivan59@hanmail.net
-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2길 33-6
- ♿ 발달장애, 고령자, 아동·청소년
- ♻ 돌봄, 농업교육, 고용, 자립지원, 사회서비스 연계 및 제공

맹큐베리팜

- ☎ 임정훈(대표), 최선희(코디네이터)
- ✉ skysky1004@hanmail.net
- 📍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옥곡 1길 16-37
- ♿ 발달장애, 고령자, 아동·청소년
- ♻ 돌봄, 자립지원, 교육, 농업기반 사회서비스 제공

(준)함께하는장곡 사회적협동조합

- ☎ 조홍식(대표), 신소희(코디네이터)
- ✉ hamkecare@gmail.com
- 📍 충남 홍성군 장곡면 홍남동로 467
- ♿ 고령자
- ♻ 돌봄, 사회서비스 연계 및 제공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 연결합니다

대전·충남권 거점농장 협동조합 행복농장

이이수

협동조합 행복농장 거점농장 팀

농업 활동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 2구에 위치해 있는 행복농장은 230평인 시설하우스 네 곳에서 와일드 루꼴라, 바질, 애플민트, 초화류 등의 주력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1차 농산물은 직거래장터, 지역장터,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등 다양한 거래처에 판매하고 있다. 행복농장에서 수확한 바질과 허브로 직접 가공한 바질페스토와 허브차 등은 주로 직거래를 활용하여 판매한다.

사회적 농업 활동

2014년에 문을 연 행복농장은 2016년, 기존에 해왔던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정신장애인의 돌봄, 교육, 고용을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을 법인 등록해 독립 운영해왔다. 이러한 실천을 인정받아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신규추진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인 ‘자연구시’는, 정신장애인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직업으로서 농업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농업을 통한 돌봄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또 하나 있다.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청소년농부학교’ 프로그램은 농작업을 함께 하고, 마을일에 직접 참여해봄으로써 지역에 대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농업을 매개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돌봄과 성장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거점농장 활동

그간 사회적 농업을 실천해온 역량을 인정받아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경인·대전·충남권역의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으로 선정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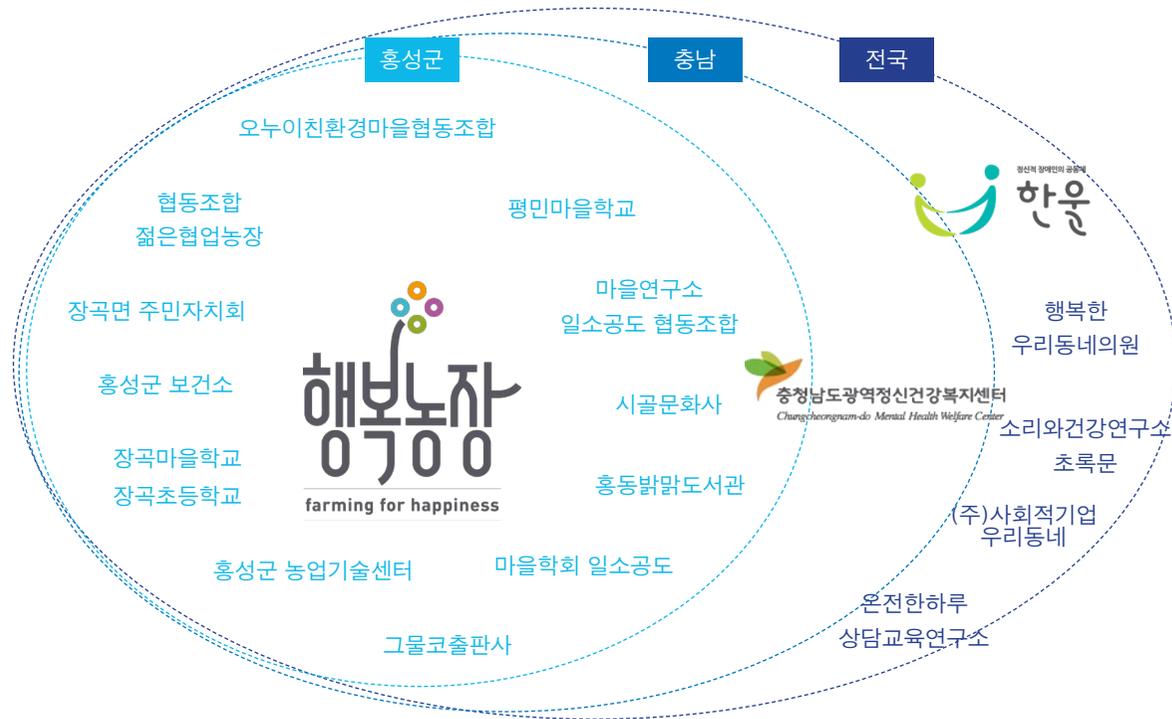


그림 1 활성화사업 시 함께 연계되는 곳들

거점농장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행복농장은 지역에 위치한 사회적 농업 농장에 실천 방향성을 자문하고 지원하며, 함께 일하는 다른 농장들과의 상호학습과 교류를 촉진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 농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교육·연구·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농업·농촌·보건·복지·교육 등 관련 분야의 협력을 도모하며, 지역 관계망 구축을 위해 지원하기도 한다. 2022년부터는, 경인 지역에 새 거점농장이 선정되면서 행복농장은 대전·충남권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림 2 거점농장사업 시 함께 연계되는 곳들

자세히 살펴보는 2021년 거점농장 사업

1 개별 농장 방문

대전·충남권에 위치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 농장에 개별 방문해, 사업에 관한 각 농장의 다양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었다. 때로는 사회적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사업 계획 및 (지자체별로그기준이 천차만별인) 행정에 대한 자문 제공 등 각 농장이 처한



사진 1 개별 농장에 방문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다.

특수한 조건에 맞추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2 관계망 구축(공동학습모임, 전체모임)

공동학습모임

사회적 농업을 진행하는 농장 대표, 관계자들이 모여 현장 경험이 반영된 각 농장별 월별 운영 사례와 활동 상황 및 다양한 실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모임은 사회적 농업 농장이 돌아가며 주관한다. 주관 농장의 실천 사례 및 지역 안내, 활동 체험 등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실천 사례를 경험할 기회의 장이 된다. 또한 사회적 농업에 대한 공동주제 학습·토론 시간을 마련해 함께 공부하도록 도왔다.



사진 2 공동학습모임에서 농장을 함께 돌아보고 있다.

전체모임

현장 경험이 반영된 각 농장별 실질적인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프로그램 및 사업 내용을 보다 풍성하게 발전시킬 바탕을 마련한다. 농장들 사이에 건강한 관계망을 형성해서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소속감을 높여, 본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기반을 만들었다.

3 사회적 농업 연구 및 세미나

한국에서 진행된 사회적 농업의 실천과 연구 경험을 함께 나눔으로써 사회적 농업의 개념과 접근 방법 등을 정리하는 '1·2차 사회적 농업



사진 3 경인·대전·충남권 전체모임.

콜로키움'을 진행했다. 사회적 농업의 실천·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태치료와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 구축을 모색하는 '생태치료에 관하여', '돌봄에 관하여' 세미나를 진행했다. 또한 농업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실천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외국자료를 번역하고, 농장 기반 생태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농업 자료집 제작 등 다양한 연구와 후속 작업을 전문 기관들과 협력·진행했다.

4 시범 프로그램 발굴

전문가를 통해 현장 기반 원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회적 농업 농장 및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원예를 활용한 현장기반 프로그



사진 4 '돌봄에 관하여' 세미나.

램 개발-마음정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농업을 해온 농장을 발굴하고 보다 다양한 자원들과 함께 연결·협력할 활동가를 찾기 위해 진행된 '경인지역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자율기획활동'을 시범 지원했다.

5 운영 매뉴얼 개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 운영 매뉴얼-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를 개발했다.



사진 5 함께 사회적 농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6 자문과 교육, 신규 농장 발굴

사회적 농업을 보다 깊이 이해할 바탕을 마련하고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교육과 자문을 제공했다. 또한 사회적 농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를 발굴하고 자문해서 사회적 농업이 안정적으로 확산될 토대를 마련했다.

2022년, 대전·충남권역 거점농장 활동

현재, 충남·대전권역의 활성화농장은 협동조합 행복농장을 포함하여

기존 농장이 8곳(천안 다함원, 대전 손수레, 예산 지오팜, 공주 공주아띠, 청양 청양푸드, 홍성 우리마을돌봄영농종합법인, 홍성 정다운농장)이 있고, 신규농장이 4곳(태안 태안드림주식회사, 청양 나눔영농조합법인, 공주 샘여울, 예산 로템나무숲)이 있다. 2022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지역서비스공동체형은 4곳(아산 꽃피우다, 논산 땀큐베리팜, 홍성 장곡면 주민자치돌봄분과, 천안 수신제가)이다. 모두 합해 총 16곳인 충남·대전의 다양한 사회적 농업 농장의 대표 및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만나 사회적 농업을 공부하고, 다양한 실천 경험들을 나눠 현장 실정에 맞게 사회적 농업을 잘 쌓아 올려갈 수 있도록 올해에도 공동학습모임 및 전체모임을 지속해갈 예정이다.

사회적 농업 농장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생태치료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각 농장에서 본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생태치료에 관한 이론 및 운영방법 교육을 위한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의 다양한 사회적 농업 실천 현장들이 연결되고, 사회적 농업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농업 뉴스레터를 한국사회적농업협회, 거점농장협의회와 협력해 제작·공유할 예정이며, 민간과 행정의 한자리에서 만나 사회적 농업을 공부하고 현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충남·대전 사회적 농업 민·관세미나도 진행된다.

현장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 대표들께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거점 활동을 꾸려가고, 충남·대전 지역의 개별 농장들이 만나 사회적 농업을 함께 공부·공유하는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동조합 행복농장은 올해에도 힘쓸 것이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소개

천안 다함원 사회적 농장 도란도란 꽃자리를 소개합니다

정훈영
다함원 대표

마을에서 산다는 것과 사회적 농업

저희가 있는 곳은 천안시 북면이라는 농촌지역입니다. 5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 중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심하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도시 근접 여건으로 새롭게 이주해오는 가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 북면에 정착한 지 30년 되었습니다. 그때 농사짓던 마을 분들은 많이 돌아가셨고, 남은 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지내십니다. 뒤를 이어 농사짓는 사람의 수는 손에 꼽을 정도로 농사짓는 방식도 많이 바뀌어 농촌공동체 소멸을 걱정하는 처지입니다.



사진 1 도란도란 노인복지센터 전경.

이렇게 그간 마을의 공동체성이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아프게 지켜보며 지낸 시간이 저희를 이 자리로 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 속에서도 마음과 물질을 서로 나누며 살 수 있었던 따듯한 마을 이야기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를 지속하고 복원해야 한다는 자그마한 책임감이 사회적 농업의 동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농촌에서 산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을에서 산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마을에 살면 사람을 만나고 서로 삶을 나눕니다. 단독자가 아닌 이웃으로 살아갑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규정되고 사회적 양식과 행동이 형성됩니다. 마을은 사람을 만드는 장소이고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자이기도 합니다. 한 인간이 마을



사진 2 꽃을 심는 어르신들.

에 충실히 속해 있다면 크게 벗어나거나 크게 걱정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마을에서 살았던 시간이 사회적 농장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이 저희에게 요구한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농장은 마을의 소유이자 작품입니다. 오래 전 농촌에 찾아온 젊은이를 받아주고 농사지으며 살 수 있게 한 것이 마을의 품이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해보자며 설치던 낫선 시도에 호응하고, 토지를 내어주며, 정착 과정을 기꺼이 도와준 것도 마을입니다. 사회적 농업의 의미를 담은 그간의 활동들은 마을이라는 바탕에서 서로 협력하며 이루어졌습니다. 청년들의 농촌 봉사 활동을 비롯해 농산물 직거래, 경로잔치, 작은음



사진 3 쑥을 캐서 쑥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약회, 청소년학교, 인문학강좌, 꽃밭 가꾸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을의 호응 덕이었습니다.

7년 전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된 뜻밖의 기회도 마을과의 관계에서 생겨났습니다. 마을에서 보살핌을 받은 젊은이들이 노년기를 보내는 부모의 애로를 덜어드리고자 하면서 노인복지센터가 마을에 설립되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노약함에 관심을 갖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마음 자체가 마을이 주는 선물입니다. 한때 어엿한 마을의 일원이셨던 분들이 몸과 정신이 쇠약해지는 상황에서도 마을과 단절되지 않고 여전히 유대를 가지고 지내시도록 돕는 것이 노인복지관과 사회적 농장의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사진 4 어르신들과 즐거운 식사를.

사회적 농장형 노인복지센터를 꿈꾸며

사회적 농장 도란도란꽃자리의 활동은 농장과 잇닿아 있는 도란도란 노인복지센터와 긴밀한 연계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농장은 노인복지센터에 방문하는 어르신들이 시설 안에 수용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분들 평생의 활동무대인 자연과 농업의 환경 속으로 서비스 반경을 넓혀보자는 취지를 지닙니다. 우리가 사회적 농장형 노인복지센터를 꿈꾸는 차원입니다.



사진 5 수확한 작물을 활용한 공동 김장.

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 30여 분이 농장 활동에 참여합니다. 활동 정도가 신체와 인지 사정에 따라 다르고, 어르신들과 동행하는 인력이 부족한 한계가 있지만, 농장 활동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원예 수업을 하면서 화분에 꽃을 심고 반려식물로 가꾸는 과정이나 틀밭에 씨앗을 심어 보살피고 수확하는 기쁨을 직접 경험하는 순간들에 어르신들은 큰 호응을 보입니다. 또한 날씨 좋은 날 마당에 나와 산책하는 시간이면 노래 부르고 운동과 놀이를 하면서 한껏 즐거워하십니다. 신체와 정서에 도움이 되는 여러 활동들을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으며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예 활동도 있는데, ‘한땀 한땀 자수 수업’과 ‘조물조물 도자기교실’, ‘인생책방’, ‘노

을진 스케치북’ 등의 이름을 가진 수업이 주기적으로 진행됩니다.

도란도란꽃자리에서는 인근 마을 노인들을 초대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이지만 농작업이 가능한 분들과는 돌봄 차원의 일자리 사업을 진행합니다. 일주일에 1~2회 오전 농작업을 하고 점심을 대접하면서 농작업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매월 한 번은 마을 분들과 요리교실을 엽니다. 참여한 분들이 마을에서 생산된 먹거리로 반찬을 만들어 홀로 계신 분들에게 나누는 일도 시작하려 합니다.

올해 진행할 과제 중에는 지역조사가 있습니다. 복지와 문화에 대한 지역 내 수요 정도를 가늠하고 향후 활동을 계획하려는 것입니다.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연관된 자원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아가는 복지문화지도를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행정과 지역 인사들에게도 도움을 청하려 합니다. 지역조사 영역에는 문화 활동 영역도 들어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성을 강화하려면 주민들이 서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고, 공동의 가치를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농장의 실천 방향

저희는 사회적 농장의 주요한 목적인 ‘농촌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과제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 관계망 조직과 함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목표에 다가가려 합니다. 또한 이 과제를 수행하는 저희의 접근 방법 중 하나는 사회적 농장 활동을 사업체의 활동을 넘어 이웃 간 생활로 이해하고 접근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농장이 현실적으로는 제도적·경제적 틀로 규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농장이 본래 목적을 잃지 않고 지속되려면 마을공동체의 생활 영역으로 들어가 공동체성을 촉발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자기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농장 활동을 ‘생활’로 이해한다면, 그 진심의 힘으로 진로가 더 확장되고, 그 동력이 더 나은 상상력을 불러오고, 더 좋은 자원과 기회들이 연결될 것입니다. 사회적 농장이 마을, 지역사회와 더 긴밀히 연합하고 협력하는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농장이 풀어야 하는 숙제 중에 ‘자생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농장의 경우에도 규모를 확대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함과 동시에 농장 자체의 힘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사업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하여 여러 정책과 지역자원을 융합해 농장 규모와 수행 능력을 키워나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형편

에 맞게 창조적 접근법을 궁리하고 지역 내 역량의 연합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이런 일들이 부단한 수고를 요구하는 과정이지만, 보람 있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장을 만들어가려면 피하지 말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서고 함께 돌볼 수 있도록 농촌 지역사회의 역할 되찾기

함께하는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소개

신소희
장곡면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충남 홍성군 장곡면 2,831명, 49.9%

2022년 2월 말 기준, 장곡면 인구와 고령화율이다. 장곡면 사람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늙어간다. 예견된 일이지만 숨이 차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아도 농촌에 사는 대개는 이 숫자 뒤에 펼쳐지는 풍경을 안다. 면 소재지 가게가 하나둘 사라지고 마을로 들어오는 버스가 뜸해진다. 왠지 낯익었던 마을 정자나무 아래가 조용해지고 잔치보다 장례 소식이 몇 곱절 많다. 무성한 풀숲과 오래된 빈집들로 마을 정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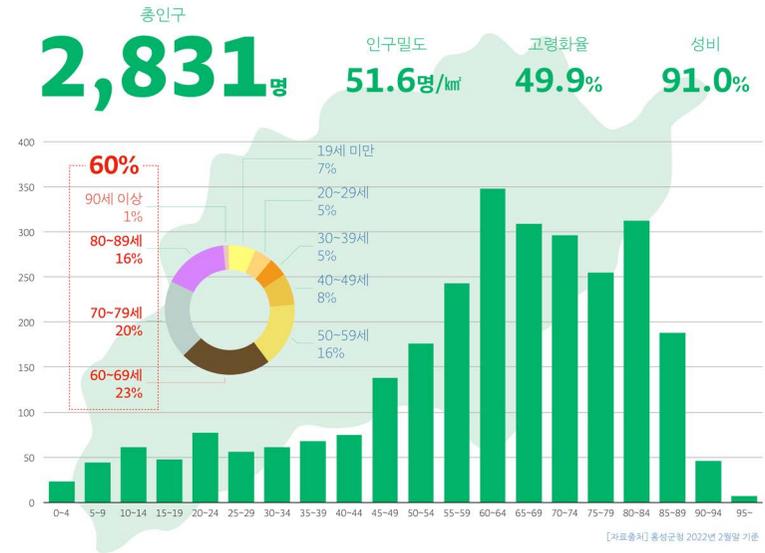


그림 1 2022년 2월말 기준 장곡면 연령별 인구 현황.

은 스산하기만 하다. 아이를 키우는 집은 인근 신도시로 이사 나가고 하나 남은 초등학교의 입학생은 해마다 줄어든다. 한적한 2차선 도로에는 트럭만 뽕뽕 달린다. 코로나로 인해 마을회관마저 문을 닫았다. 마을과 마을,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하루들은 얼마나 길고 적막할까, 먼저 헤아리고 움직이는 건 그래도 마을 이웃들이다. 옆집 손가락 사정은 물론,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멀고 고된지, 도시에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생활의 작은 필요들이 시골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고

비싼 일이 되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이다. 당장 어려운 일이 생기면 멀리 사는 가족보다 동네 이장님을 먼저 찾는 게 아직까지 농촌의 인지상정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장곡면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결성과 활동

장곡면에도 마을마다 정다운 이웃들이 있다. 마을에서 고독사가 잇따라 발생하자 손수 농사지은 먹거리와 품을 내어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자발적으로 반찬 배달을 하는 부녀회, 부러 동네 할머니들에게 농사 소일거리를 나누고 정성으로 차린 밥상을 대접하는 농장, 주민들이 함께 모여 그림 그리며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놓는 마을,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이웃 마을 할머니들이 편하게 어울리실 수 있도록 농장에 초대해서 함께 꽃도 가꾸고 요리활동을 하는 농민, 언젠가 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치매예방과 원예복지 교육을 열심히 받은 젊은 주민들이 있었다. 각자 농장과 마을에서 주변 이웃들을 만나고 돌보는 활동을 당연스레 해왔다. 하지만 어떤 때는 돌봄에 드는 자원이나 비용이 아쉽기도 했고, 몇몇의 희생이나 봉사가 누적되다 보면 부담이 커졌다. 함께 해오던 일들이 개인 사정 때문에 어



사진 1 '장곡면 2030 발전계획' 수립 공동학습회.

쩔 수 없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2019년 말 장곡면 주민 스스로 10년 후 장곡면의 미래를 그려보자는 취지로 '장곡면 2030 발전계획 수립 공동학습회'가 열렸다. 7회에 걸친 공동학습회와 주제별 간담회, 지역 기관단체 인터뷰, 종합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면 단위 지역 발전 논의와 학습의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장곡면 우선 과제로 지역 노인복지 통합 체계 구축과 마을공동체 돌봄 활동 촉진, 사회적 농업 실천 확대 등이 꼽히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장곡면 2030 학습공동체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로 약칭)를 결성했다. 개별 마을, 농장, 단체들의 자발적인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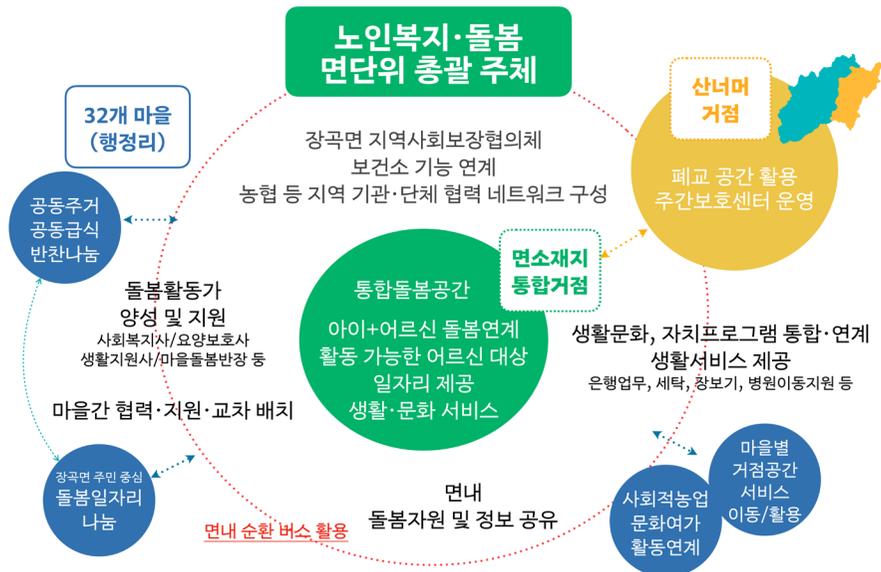


그림 2 '장곡면 2030 발전계획' 복지·돌봄 간담회 논의 내용(노인복지체계 구조도).

봄 활동을 서로 공유하고 지지하는 열개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이었다. 마침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이 생기면서 활동을 조직할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정다운농장(대현1리/마을 어르신 텃밭요리활동/지역아동주말돌봄), 두리농장(상송1리/어르신 반찬나눔과 생활돌봄), 조아라농장(천태1리/농장 재배 특수작물, 화훼를 활용한 농가공 및 생활공예), 란앤정농장(광성3리/귀농 희망 및 귀농 초기 1인가구 여성 커뮤니티)의 돌봄 활동을 지원했다. 먼저 사회적 농업을 독자적으로 펼치고 있던 협동조합 행복농장과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도산2리)도 네트워크 회의에 적극 참여했다.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도산2리)과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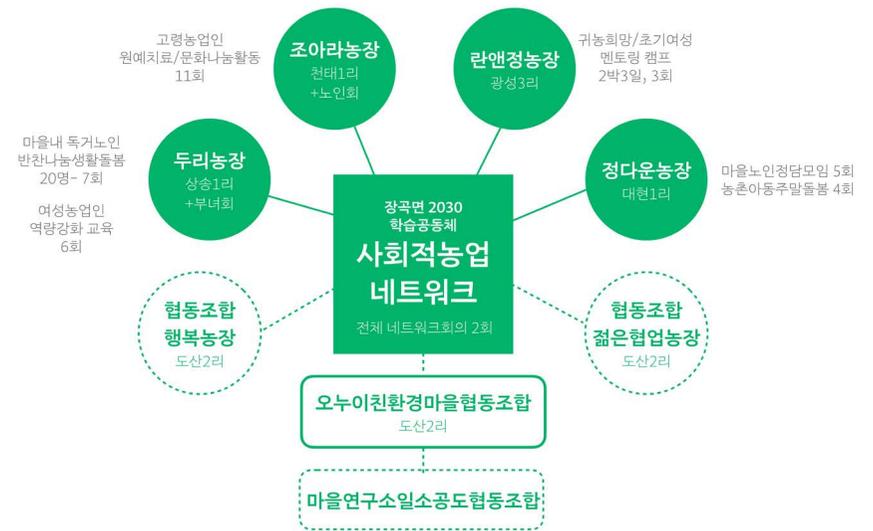


그림 3 2020년 장곡면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내용.

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도산2리)에서 사업 기획과 공동학습 조직, 행정을 도왔다. 2020년 11월 말 장곡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모두 장곡면 주민자치회의 복지·돌봄분과에 참여했다.

2021년에는 네트워크 참여 마을과 농장, 지원 활동이 늘어났다. 선배 농장을 보고 오누이농장(지정2리/경증치매독거어르신 원에 활동 및 결혼이주여성 커뮤니티 형성 지원)과 텃밭협동조합(산성1리/마을 농산물 활용 전통음식 요리활동 및 나눔)에서 마을 어르신들과 사회적 농업을 새로 시작했다. 흥성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치매예방지도



그림 4 2021년 장곡면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내용.

교육'과 '원예로마을복지사' 교육을 수료한 장곡면 주민 6명이 모여 '장곡 어르신 행복지킴이' 팀을 꾸렸다. 새마을부녀회의 협조로 희망 마을 신청을 받고, 마을회관으로 직접 찾아가 어르신들과 치매예방 활동과 꽃·허브 등을 활용한 생활원에 교육을 진행했다. 주민자치회 생활·환경분과에서 기획·실행한 마을별 고령농 영농 페비닐 수거 활동을 일부 지원하기도 했다.

네트워크 모임이 곧 주민자치회 복지·돌봄분과 회의가 되었다. 서로 활동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장곡면 내 더 많은 마을에

서 돌봄 활동을 함께할 수 있을지 궁리했다. 7~8월 농한기에 주민 조사단을 조직해서 면내 27개 마을 현안 및 돌봄 수요·자원을 조사했다. 조사 설계부터 조사단 교육까지 모두 네트워크 회의와 공동학습을 겸해 이루어졌다. 장곡면 폐교를 어떻게 돌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을 모으고 방법을 찾는 워크숍도 열었다. 협동조합 행복농장과 천태1리 마을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장곡면 노인장기요양사업 운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네트워크 차원에서 정보와 구상을 공유하면서 각자 지역사회 복지 사업을 준비해서 추진하고 이후 연계·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주민자치와 사회적 농업을 바탕으로 장곡면 돌봄망 구축하기, 함께하는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지난 2년 동안 장곡면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에서는 면 단위 복지·돌봄 사업을 통합적으로 조직하고 지원하는 '큰 그릇'의 필요를 꾸준히 논의해왔다. 더 많은 마을 이웃·단체들과 함께 돌봄 활동을 촘촘히 조직하고 농촌 지역의 빈약한 공공·사회·생활서비스를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일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는, 공공성과 자율성을 지닌 지역 주체가 있어야 한다는 합의가 모아



사진 2 지정2리 오누이농장 독거 어르신 짝꿍 만들기 활동.

졌다. 그렇게 ‘함께하는장곡 사회적협동조합’이 시작됐다.

‘함께하는장곡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주민자치와 사회적 농업을 바탕으로 장곡면 돌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농촌다운 지역사회통합 돌봄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장곡면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새마을지도자회, 적십자봉사회, 청년회 등 지역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사회적 농업 및 생활돌봄 활동을 확대해갈 예정이다. 장곡면 소재지에 ‘돌봄 복덕방’처럼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주민 돌봄 역량 강화와 사회적 농업 확대를 위한 논의와 학습, 소통, 정보발신을 담당한다. 장곡면 32개 마을마다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장곡면 곳곳에 사회적 농업 실천 농장이 생길 수



사진 3 천태1리 봄맞이 활동.

있도록 주민 주도 돌봄 활동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2022년에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기존 장곡면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활동을 계속 이어갈 뿐 아니라, 흥성유기농영농조합과 협력해서 장곡면 주민과 농가를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교육을 실시하고, 면내 신규 발굴 마을·농장의 시범 활동을 기획·지원할 예정이다. 또 흥성군 주민참여예산으로 조성되는 ‘장곡면 행복나눔 공동빨래방’ 운영에도 참여해서, 마을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이불빨래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빨래방이 장곡면 주민 사랑방으로 자리 잡는 데 힘을 보태는 것도 올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적십자봉사회에서 진

나누는 공부



사진 4 장곡 어르신 행복 지킴이 활동. 장곡면 주민으로 이루어진 '행복지킴이' 팀이 각 마을회관으로 찾아가서 어르신들과 치매예방 및 생활원에 활동을 진행했다.

행하는 장곡면 독거어르신 반찬나눔 활동이나 새마을부녀회에서 진행되는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에 장곡면 차원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자원 연계도 논의 중이다.

장곡면 사회적 농업 실천의 목적은 여러 이웃들의 선의를 드러내어 연결하고 증폭시키는 데 있다. 한평생 살아왔던 터전에서 이웃과 참된 관계를 맺으며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늙어가길 바라는 마음들, 같은 마음으로 지역의 미래를 기획하고 이웃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다.

아일랜드의 사회적 농업과
지적 장애인 지원 서비스 / 김정섭



아일랜드의 사회적 농업과 지적 장애인 지원 서비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아일랜드 사회적 농업의 특징

아일랜드 사회적 농업의 바탕에는 몇 가지 핵심 가치가 있다. 먼저 “개인에 초점을 두고” 실천한다. 참여하는 개인들이 보통의 농가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는 혁신적 기회를 제공할

◆ 이 글은 ‘아일랜드 사회적 농업 기구(Social Farming Ireland)’가 발행한 책자 《사회적 농업과 지적 장애인 지원 서비스(Social Farming and Intellectual Disability Services)》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 번역한 것이다. ‘아일랜드 사회적 농업 기구’는 아일랜드

것을 크게 강조한다. 참여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추구함으로써 독립과 평등을 촉진하는 “진보적” 실천이기도 하다. 자연환경과 지역사회 안에서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이루어질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농업은 현재 분절된 전문 의료 환경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실천된다.

2 지적 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 농업의 효과

“접경지역 사회적 농업 Social Farming Across Borders; SoFAB” 프로젝트의 결과

SoFAB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에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럽연합EU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금을 지원한 지역정책 프로젝트

의 여러 카운티에서 활동하는 중간지원조직 중 한 곳인 ‘리트림 카운티 지역발전 회사Leitrim Integrated Development Company’에 아일랜드 정부가 사회적 농업 관련 사업을 위탁해 수행하도록 조직한 단체로서,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을 확산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은 그 홈페이지<http://www.socialfarmingireland.ie>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트다. 더블린 대학, 벨파스트 퀸즈 대학, 리트림 카운티의 지역발전회사 등이 연합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역에 20개 시범농장을 선정해 사회적 농업을 지원했는데, 66명의 참여자가 30주 동안 시범농장을 방문해 사회적 농업 활동에 참여했다. 참여자를 맞이한 농가 구성원, 참여자,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질적·양적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SoFAB 프로젝트에 참여한 66명 중 37명이 지적 장애인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온 지적 장애인이었고, 29명은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온 정신 장애인이었다. 지적 장애인 정신 장애인 사회적 농업 활동 참여의 효과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래도 지적 장애인 지원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30주에 걸쳐 진행된 프로젝트에서 지적 장애인들의 평균 출석률은 88%였다.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를 평가하게 한 설문조사에서 68%가 10점 만점을 주었다. 참여자 대부분(87%)은 30주 동안의 이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도 계속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사회적 농업이 계속되면 좋겠다고 응답한 이유로 제시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 사회적 연결, 정신건강 증진, 생활 기술 향상, 자연환경이나 동물을 접할 때 느끼는 즐거움, 목적의식이 생겨나는 것 등.

- ◆ 참여자 중 37%는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이 증진되었다고 확인해주었다.
- ◆ 참여자의 81%가 사회적 포용을 경험했다고 확인해주었다. 이들은 SoFAB 프로젝트 스태프들과의 상호작용, 새로운 친구 사귀기,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관심 증대, 다른 농장이나 장소 방문하기, 가축 시장 같은 행사에 가기 등의 활동에서 좋은 점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 ◆ 참여자의 80%가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면서 얻은 이점 중 하나로 ‘기술 배우기’를 예로 들었다. 실용 농사 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배웠다고 응답했다. 실용 농사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원예, 가축 돌보기, 건축, 농장 경영, 목공 등. 사회적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독립성, 의사소통, 대인관계 기술, 듣는 기술, 팀의 일원으로서 일하기 등.
- ◆ 향후 취직 가능성 측면에서 사회적 농업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낀 응답자는 27%였는데, 이들은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에 관해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사회적 농장에 계속 오고 싶다는 열망이 강하게 드러났으며, 트랙터 운전하거나 장비 사용하기 같은 새로운 일을 배우고 싶다고 응답했다(54%).

‘아일랜드 사회적 농업 기구’의 연구 결과

아일랜드에서는 2017년 이후 전국에 사회적 농업이 확산되었다. 그에 발맞추어 ‘아일랜드 사회적 농업 기구’는 사회적 농업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사회적 농업에 참여한 동기와 배경

참여자들은 모두 자신을 도와주던 지적 장애인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도움과 격려에 힘입어 사회적 농장에 오게 되었다. 아일랜드에는 지적 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원예나 영농을 활용해온 전통이 있다. 그래서 지적 장애인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사회적 농장에 온 참여자 중 어떤 이들에게 텃밭가꾸기나 농사는 아주 낯선 일이 아니었다.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기로 한 선택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계기가 있었다. 가령 농가에서 일을 도왔던 어린 시절의 긍정적 기억이나,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다는 바람이 작용했다.

아빠는 농부였어요. 할아버지한테 농장을 물려 받았고요. (...) 검정 소가 있었는데, 그때 재미있었어요. 소가 문 앞으로 와서는 아빠가 양동이를 들고 오는 것을 쳐다보곤 했어요. (...) 엄마는 우유로 버터를 만들었고, 우리 모두 그 버터를 먹었어요. 농사는 아주 재미있어요.

제 생각에 그(참여자)는 농사짓고 농장에 머무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보입니다. 농장에 있으면 환해지는 것 같아요. 농사나 농장이 그에게 그냥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는 농장에 있을 때 몰입하는 듯했고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언어 장애가 있는 참여자의 경험에 관해 논의할 때, 사회복지사의 언급)

다른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이 동물 키우거나 텃밭 가꾸기, 자연에 대한 호기심, 농장생활의 리듬 같은 것들로부터 생겨났다. 또 다른 참여자들에게는 참여 동기가 농사 경험과 특별히 관련 있지는 않았다. 이들에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욕구, 그리고 사회생활의 반경을 넓히고 싶다는 욕구가 가장 중요했다.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 집이나 주간보호센터 밖으로 나갈 기회가 된다는 점, 늘상 하던 일을 벗어날 기회라는 점 등이 동기로 작용했다.

2 사회적 농업 활동

참여자들은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농장의 유형, 계절, 참여자의 능력 등에 따라서 다양하다. 이들이 함께한 농장 활동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소, 양 등의 가축 돌보기: 살펴보기, 먹이주기, 옮기기 등
- 닭, 오리 등 가금류 돌보기: 계란 모으기, 헛간 청소하기 등
- 말과 함께 걷기, 말 털 손질하기, 마구간 청소하기
- 텃밭 가꾸기: 씨뿌리기, 풀 뽑기, 물 주기, 수확하기
- 농장 관리: 페인트 칠하기, 수리하기, 물청소, 잡초 제거 등
- 목공: 나무로 새집, 의자 같은 물품 만들기
- 오래된 농기계 수리하기
- 돌담 쌓기 및 고치기
- 숲 관리, 땀감 모으기 및 자르기
- 관찰하기, 기록하기, 사진찍기, 그리기: 예를 들어, 농장에서 볼 수 있는 야생동물 그리기
- 요리하기, 빵 굽기
- 점심식사 또는 차 마시는 시간에 준비하는 것을 돕기
- 지역 행사, 동네 상점, 농자재 판매점 등에 가기

3 사회적 농업 참여자의 반응

사회적 농업 활동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의 경험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 응답들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회적 농업이 긍정적이고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는 점이다.

사회적 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즐거운 일이었다고 참여자들이 말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명백한 성공의 징표일 테다.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들 여러 명이 언급했듯이, 참여자들은 새로운 기술skill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는데, 아주 즐거운 방식으로 그런 일이 진행되었다. '재미있다', '많이 웃었다', '즐거웠다' 등과 같은 말에서 그런 반응이 드러난다. 참여자들에게 '사회적 농장에 가는 날'은 한 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 되었다.

앞에 든 활동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농장 환경은 다양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서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새롭게 제공할 수 있었다.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들이 참여자들이 어떤 활동을 언제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선택의 여지를 아주 많이 준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계획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평소에 제약이 많은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할 선택권과 '스스로 결정하는 경험'을 사실은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사회적 농장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이 소규모 집단이라는

점도 개인에 초점을 둔 활동을 하도록 도왔다. 농장이 '살아있다'는 점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이라는 점도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동물이 태어나거나 날씨가 변하거나 나뭇잎이 떨어지고 나무를 베어야 할 시기가 오는 등의 변화 등이 그 예다. 면담 조사에 응한 여러 농민들도 주간보호센터 같은 딱 짜인 환경에서 벗어나 농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여자들에게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으리라고 말한다.

농장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란, '필요한 거라면 뭐든지 해야 하는' 그런 활동이지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이고 생생한 경험이 됩니다. 우리(농민과 참여자)는 농장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료통에 사료를 채우는 일, 양들을 살찌우는 일, 나무에 관한 일, 날씨에 관한 것 따위를 이야기했습니다. 제 생각에, 참여자들이 흥미를 갖는 부분은 '실제 일'을 직접 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 있는 농장 환경은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적절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방식으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환경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사회적 농업이라는 실천이 근본적으로 농민과 참여자 사이

에 따스하고,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사회적 연결 및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라는 점이다. 사회적 농업 활동에 참여한 지적 장애인 중 다수가 자신의 목표 중 하나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며 자신의 사회적 활동 반경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만남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들이 지니는 전형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새로운 사회적 연결(그들은 대개 '우정'이라고 표현한다)이 가장 유익했다고 말한다.

나는 농장을 좋아합니다. 2년 정도 더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차를 같이 마시고, 웃는 일이 좋습니다.

여러 농민들이 압박감 없는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 나란히 서서 일하며 시간을 보낼 기회가 되었다는 점을 말했다. 대화가 시작되고, 관계가 발전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란히 서서' 일하는 때이다. 농가 환경도 농민과 그 가족이 참여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 등의 기회를 주어서, 자연스럽게 따스한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지역사회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는 것은 지적 장애인들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어느 기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농장을 찾아 밖으로 나가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참여자들은 농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농촌 지역사회는 사회적 포용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 어느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일입니다. 지역사회 안에 지적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사회적 농업이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사회적 농업을 통해 만난 농민들 중에는 우리가 일하는 ○○주간보호센터라는 것 자체를 예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쌍방향의 우정을 쌓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계는 상호 호혜적인 것이다. 사회적 농업 활동이 진행되면서 농민 가족이 사회적 농업 참여자들이 지내는 장소를 방문하는 일이 흔해졌다. 사회복지사들은 이처럼 지역사회 내 유대가 튼튼해지는 것이 장애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바꾸고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한다고 말한다. 사회적 농업은 참여자와 농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 직원과 농촌 지역사회 전체 주민들까지 포함해 서로 간에 새롭고 풍요로운 연결과 관계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었다.

셋째는 정신건강이 증진되었다는 점이다. 많은 참여자들이 사회적 농업의 유익한 점으로 꼽는 대목이다.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후 자신의 상태가 더 좋아졌고 더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

았다. 그 이유는 개인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가장 공통된 언급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 '일상생활의 목적과 느낌이 강해짐', '사회복지기관이나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감', '텃밭 가꾸기, 가축 돌보기, 목공 배우기, 페인트 칠하기 등에 흥미를 갖게 됨' 등이었다. 이는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참여자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었다. 밖으로 나가서 자연스러우면서도 목적성 있는 신체 활동을 한다는 것이 참여자들에게는 중요한 유익함이었다.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일을 하거나 농장 주변을 걸어나다니면서 민첩성이나 이동성 같은 신체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말하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많았다. 어느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에는 그(참여자)가 말 앞에서 주눅이 들고 말을 다루지 못했는데, 지금은 말에게 먹이를 주고 말을 다루는 능력이 진짜로 좋아졌습니다.

넷째는 사회적 농업이 참여자들에게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학습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특히, 여러 작물과 가축을 함께 기르는 복합영농 농가들에서 이 같은 학습 기회가 더 잘 제공된다. 가축에게 먹이를 주고, 동물을 돌보고, 계란을 모으고, 잡초를 뽑고, 텃밭을 가꾸고, 울타리를 손질하고, 축사를 청소하고, 목재를 자르

는 등의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처음으로 무언가를 시도하는 경험을 얻기도 한다.

무슨 새로운 일을 했냐구요? 꽃에 물을 주었는데, 전에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말을 키우는 일을 했어요. 말이 멋집니다.

대개 참여자들은 자신이 한 작업에 자긍심을 갖게 되는데, 이는 참여자들의 개인적 발달에 기여한다.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능력과 가치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농민이나 사회복지사는 때로는 그런 일들이 참여자에게 큰 도전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관찰했다. 참여자들이 과거에 지니고 있었던 개인적 능력을 넘어서고 자긍심을 갖도록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농업은 참여자의 독립, 능력, 자신감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여러 사회복지사가 지적한 대로, 농민들은 보통 일정 수준의 능력을 가정하고 참여자에게 그것을 달성하도록 고무한다. 그런데 그 능력 수준은 전문적인 사회복지사가 상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마찬가지로 농민들은, 사회복지사가 곁에 있을 때 참여자들이 하던 정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스스로를 허락'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느 농민은 이렇게 말한다.

참여자들을 인솔하고 온 사회복지사는 아주 좋은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회복지사가 때로는 이 청년(지적 장애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여자 J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힘으로 컵을 싱크대에 갖다 둘 수 있어야 해요.” 물론, 그 청년 J씨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참여자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시작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다보면 참여자들 스스로 놀라게 되고, 그들을 데려온 사람들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사회적 농업에 참여함으로써 자연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참여자는 자연환경 속에서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시간을 보낼 기회를 얻는다. 어떤 경우에는 동물이 새끼를 낳는 광경을 보고, 동물이 자라나는 것을 보며, 그 과정에 신경 쓰고 돌봄을 제공할 실제 역할을 맡기도 하며, 동물을 만지고 다루는 감각적 경험의 기회를 얻기도 한다. 농민들은 참여자들이 동물을 보살피고 동물과 시간을 보냄으로써 심신이 편안해지고 평온해지는 효과를 참여자들에게 가져온다는 점을 관찰했다. 풍경, 소리, 냄새, 맛 등 여러 종류의 감각적 경험을 사회적 농업이 제공한다. 이런 경험들은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이며 그들의 삶을 향상시킨다. 이런 감각적 경험이야말로 중증 지적 장애인에게 특별히 가치 있다.

3 아일랜드 사회적 농업 활동의 기본 규칙

‘아일랜드 사회적 농업 기구’는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 농업 활동의 절차를 개발하고 모델을 만들어왔다. 그 절차는 다음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다.

- ◆ 안전하고, 의미 있고, 즐거운 참여 경험을 참여자들에게 제공한다.
- ◆ 참여자 스스로 사회적 농장에서 무엇을 경험할 것인지 틀을 짤 기회를 제공한다.
- ◆ 사회적 농장에 프로그램을 위탁한 이들(정부기관, 사회복지기관 등)과 높은 수준의 협력 구조를 유지하며 품질을 보장한다.
- ◆ 참여자 개인이 사회적 농업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작업한다.

‘아일랜드 사회적 농업 기구’의 운영 모델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 ◆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농민은 ‘아일랜드 사회적 농업 기구’를 통해 참여자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활동을 위임받는다. 다양한 조직이나 기관이 사회적 농업 활동 위임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

기관, 지역발전 기관, 자선단체, 자원봉사단체, 장애인 옹호집단, 장애인 가족 등이 위임자가 될 수 있다. 지적 장애의 경우, 비정부단체, 자원봉사단체, 자선단체, 아일랜드 보건복지관련 공공기관, 가족 등이 사회적 농업 활동의 위임자가 될 수 있다.

- ◆ 참여자가 통상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농장에 방문해 농장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정된 기간 동안에 매주 1회 정도 참여한다. 참여자의 필요나 욕구에 따라 짧게는 8주에서 길게는 42주 정도 기간으로 프로그램이 편성된다. 어떤 경우에는 지적 장애인 지원기관을 통해 참여하게 된 이가 여러 해 동안 사회적 농장 활동에 반복적으로 참여도 한다. 농장에 방문하는 날 몇 시간 동안 머무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짧게는 두세 시간 정도 농장에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평균 대역섯 시간 정도 농장 활동에 참여한다.
- ◆ 참여자 또는 참여자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에 (합리적 수준에서) 가까운 사회적 농장에 참여자가 방문하도록 조정된다. 지역에 훈련되고 경험 많은 사회적 농장이 많을수록 사회복지기관이나 참여자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 ◆ 현재로서는 사회적 농장에 3~4명의 참여자가 동시에 방문한다. 이는 사회 참여라는 관점에서 그 정도 규모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자나 사회복지기관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기도 한다.

- ◆ 참여자가 농장을 방문하는 날 제공되는 지원 활동은 고도로 개인화된 것이어야 하며, 참여자의 능력이나 자신감 그리고 농민의 관점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대개의 경우, 참여자들은 처음 몇 주를 지나고 나면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적 농장 활동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자신들을 농민에게 맡기고 그 장소를 떠나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있지 않다 해도 전화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 참여자는 농민과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참여자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방문 당일 농장의 상황, 계절, 날씨, 참여자의 발달 단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참여자의 능력과 관심과 목표와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적 농장은 대부분 참여자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 규모의 복합영농을 수행하는 농장이다.
- ◆ ‘아일랜드 사회적 농업 기구’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사회적 농장을 선정하고, 그 농민들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멘토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농민은 ‘사회적 농업 실천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최소 이틀 정도 걸린다. 사회적 농업 실천, 아일랜드의 보건복지 안전규정, 농장 위생 및 안전,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방법 등의 내용을 배워야 한다.

전하는 소식

◆ 대전·충남권 민·관 간담회

- 일시 / 2022년 4월 11일 10:00-12:00
- 장소 / 오누이다목적회관(충남 홍성군 장곡면 홍남동로473번길 79-22)
- 내용 / 대전·충남의 사회적농업 농장 대표와 관련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합니다.

◆ 대전·충남권 공동학습모임

- 일시 / 2022년 4월 29일 10:00-13:00
- 장소 / 우리마을돌봄영농조합법인(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동길 194)
- 내용 / '사회적 농업과 지역공동체(강사 김정섭)' 강의를 듣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사회적 농업 실천 경험을 공유합니다.

◆ 전국사회적농업거점농장협의체 기본교육(총 5차)

- 장소 / 04.21 대철회관(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78길 61)
04.28-05.26 오송CV센터(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23)
- 시간 / 10:00-17:00
- 주최 /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 청년마을
- 주제 / 2022.04.21 / 정신장애와 사회적농업
2022.04.28 / 발달장애와 사회적농업
2022.05.12 / 노인문제와 사회적농업
2022.05.19 / 청년문제와 사회적농업
2022.05.26 / 아동문제와 사회적농업
- 교육 내용 / 사회적농업의 역사와 개념 및 전망, 전문가에게 듣는 주제별 대상에 대한 이해 및 실천방법, 주제별 선진 농장 대표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
- 신청 / 각 권역별 거점농장을 통해 4월 8일(금)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 충북·세종권 / 청년마을 한석주(010-8838-3740)
 - * 대전·충남권 / 협동조합 행복농장 최정선(010-3723-2757)
 - * 전남 /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 이은경(010-9443-5070)
 - * 경남·경북·울산 / 청송해뜨는농장 윤수경(010-2004-5724)
 - * 강원 / 횡성언니네텃밭 이숙자(010-7159-8128)
 - * 경기·인천 / 콩세알 서정훈(010-2767-5580)
 - * 전북·완주 /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효진(010-6622-5992)

사회적농업의 실천과 담론을 전하는

사이통신 6호

펴낸 날 2022년 4월 4일
펴낸 곳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
펴낸이 사회적농업거점농장협의체, 협동조합 행복농장
글쓴이 김기흥, 김정섭, 신소희, 이이수, 정훈영
간지 사진 김세빈
제작 시골문화사